



◀영화 '위플래쉬'

영화 '위플래쉬' 감흥 라이브 재즈가 있다



◀프랑스 재즈 밴드 '레미 파노시앙 트리오'

수첩에 기록해 두어야 할 행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영화 '위플래쉬'의 감흥을 간직하고 있는 이라면 더더욱 놓치지 아까운 공연이다. 영화의 피날레, 심장이 터져버릴 것같은 재즈 드럼 연주를 경험한 이들은 심중팔구 실제 재즈 라이브 연주를 듣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을 터.

프랑스 재즈 밴드의 라이브 공연과 영화 '위플래쉬'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지난 2009년부터 '음악으로 통하다'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 프랑스문화원(원장 최승은)과 광주극장이 준비한 행사다.

프랑스 출신 레미 파노시앙 트리오 재즈 콘서트와 영화 '위플래쉬' 상영이 어우러지는 '음악으로 통하다' 행사가 오는 5월 2일 오후 5시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프랑스문화원-광주극장 '음악으로 통하다' 5월 2일 레미 파노시앙 콘서트+영화 상영

레미 파노시앙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재즈의 날'(Jazz Day·4월 30일)을 기념해 오는 30일~1일 서울에서 공연을 가진 후 광주 공연을 이어간다.

최근 'R3'로 이름을 바꾼 레미 파노시앙 트리오는 록, 힙합, 일렉트로니카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재치있게 활용하면서 도 자신들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룹으로 파노시앙(피아노), 막심 델포트(베이스), 프레데릭 프리프레즈(드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10월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에 참가해 국내에 이름을 알린 이들은 2011년에만 세 차례 내한했으며 광주 MBC '난장' 프로그램에 참여,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한국에 대한 사랑이 깊은 뮤지션으로 꼽히는 이들은 한국에서 우연히 탄 택시 운전사와의 이야기에서 출발한 '헬시 캡'

(Healthy Cab), 갈비를 가리키는 '비비큐'(BBQ) 등의 곡이 수록된 앨범 'BBANG'을 발매했으며 오는 5월 1일 선보이는 새 앨범에도 제주도에 대한 감흥을 표현한 곡 '제주도'(Jeju-do)를 담았다.

특히 막심 델포트는 서울시 주최 튜브 영상 공모전에 참가했으며 이 영상 일부가 박찬욱 감독의 '고진감래'에 사용되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 공연 때 마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Into The Wine'과 'Happy Culture', 'Water Pig' 등과 함께 새 앨범 수록곡, 재즈 스탠다드 넘버 등을 선보이며 영화 '위플래쉬' 삽입곡도 한국 들려줄 예정이다.

재즈 공연에 이어 상영될 '위플래쉬'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 음향상, 편집상 등 3개 부문에 수상한 작품으로 천재 드러머를 감명하는 학생과 그의 광기가 폭발할 때까지 몰아치는 폭군 선생의 대결을 그리고 있다.

개봉 한달만에 150만명의 관객을 돌파하며 다양성 영화 역대 흥행 순위 8위를 기록한 '위플래쉬'는 손가락이 찢어지는 연습 과정을 거쳐 대역 없이 모든 드럼 연주를 소화해낸 마일스 텔러의 연기가 압권이다. 특히 아카데미를 비롯해, 골든글로브 등 남우조연상을 휩쓴 J.K 시몬스의 연기가 극을 장악한다. 극전 반전과 함께 마지막 카네기홀에 선 마일스 텔러의 신들린 드럼 연주는 오랫동안 심장을 뛰게 한다.

티켓 가격 예매 1만원, 현매 1만5000원. 문의 062-224-5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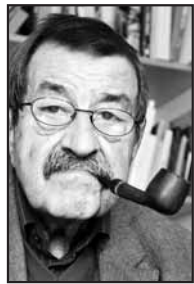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양철북' 작가 독일 출신 귄터 그라스 타계

'양철북'의 작가 독일 출신 귄터 그라스가 사망했다고 그의 이름을 딴 재단 측이 3일(현지 시간) 밝혔다. 향년 87세.

1927년 폴란드 그다니스크로 불리는 단지히 지역에서 태어난 그라스는 독일 전후 세대 문학을 대변하는 작가로 평가받았다. 2차세계대전 중 포로 생활을 하다가

1956년부터는 파리에서 생활했다. 그는 2006년 자신이 나치 친위대에 부역한 사실을 인정해 세계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구의 위선에 염증을 느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밝힌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현실의 부조리에 침묵하지 않았다. 이 같은 작가적 양심은 그가 과거



은 성장을 거부하고 양철북을 목에 걸고

사 문제에 천착하는 계기가 된다. 그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양철북'(1959)은 독일 전체주의 폭력성과 독일 국민의 소시민적 유아성을 드러낸 대표적 작품이다. 소설

두드리는 소년 오스카의 몸으로 체현한다. 작가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역사 뒤편의 허구의 삶을 드러낼 뿐 아니라, 양철북을 두드리는 행위를 통해 허울의 사회를 질타한다.

한편 귄터 그라스는 '두꺼비들의 재능'(1956), '대홍수'(1957) 등을 펴냈고 1984년 제4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극단 '광주 100년사-정율성' 보고 나서



담백한 무대 위 빛난 정율성 3인 음악극 형식 몰입도는 떨어져

100년사 시리즈, 인물서 시대작품으로 변화 모색을

음악을 사랑하는 소년 정부는, 항일 운동가로 치열한 삶을 산 청년 황청해, 혁명과 예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노년의 정율성. 각기 다른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세 사람이 한 무대에 서서 지난날을 회상하는 마지막 신은 인상적이었다.

지난 10~14일까지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광주시립극단의 '정율성'은 지난해 최종종 목사에 이어 광주 100년사 시리즈 두번째 작품으로 기획됐다.

연극 '정율성'은 중국의 3대 현대 음악 작곡가로 꼽히지만 정작 광주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복원해낸 점에서 의미있는 공연이었다. 한 사람의 일대기를 따라가는 다소 단선적인 구성을 피하기 위해 작품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인 3명의 정율성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여기에 정율성의 음악과 새로운 창작곡들을 더한 음악극 형식을 도입, 변화를 꾀했다.

음악들을 라이브로 들려주며 감정선을 자극했고, 다소 평면적인 작품에 입체감을 부여했다.

하지만 무대에서 노래하는 경향이 거의 없는 배우들이 치열하게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해도, 파괴력이 있어야 할 주인공들의 솔로나 이중창이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웠다. 솔로곡들을 배제하고 적절히 배치된 '연안송', '연수요' 등 정율성의 곡들과 함께 아름다운 멜로디가 인상적이었다.

연극 '정율성'은 중국의 3대 현대 음악 작곡가로 꼽히지만 정작 광주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복원해낸 점에서 의미있는 공연이었다. 한 사람의 일대기를 따라가는 다소 단선적인 구성을 피하기 위해 작품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인 3명의 정율성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여기에 정율성의 음악과 새로운 창작곡들을 더한 음악극 형식을 도입, 변화를 꾀했다.

반가운 건 젊은 배우들의 약진이다. 노년의 정율성 역을 맡은 송정우씨가 든든하게 극을 받치고 소년·청년 역의 김성관·이영환씨 등 또 다른 정율성 역의 배우들이 제역할을 다했다. 특히 이명덕씨 등 1인 다역을 한 젊은 배우들의 연기는 서로 호흡이 잘 맞고 공들여 연습한 흔적이 보였다. 또 최근 공연 분야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영상 장치 등 과욕을 부리지 않고 담백하게 꾸민 무대도 인상적이었다.

의욕적으로 시도한 음악극 도입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정율성의 음악을 편곡하고 새롭게 작곡한 서정적인

음악들을 라이브로 들려주며 감정선을 자극했고, 다소 평면적인 작품에 입체감을 부여했다.

하지만 무대에서 노래하는 경향이 거의 없는 배우들이 치열하게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해도, 파괴력이 있어야 할 주인공들의 솔로나 이중창이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웠다. 솔로곡들을 배제하고 적절히 배치된 '연안송', '연수요' 등 정율성의 곡들과 함께 아름다운 멜로디가 인상적이었다.

연극 '정율성'은 중국의 3대 현대 음악 작곡가로 꼽히지만 정작 광주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복원해낸 점에서 의미있는 공연이었다. 한 사람의 일대기를 따라가는 다소 단선적인 구성을 피하기 위해 작품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인 3명의 정율성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여기에 정율성의 음악과 새로운 창작곡들을 더한 음악극 형식을 도입, 변화를 꾀했다.

반가운 건 젊은 배우들의 약진이다. 노년의 정율성 역을 맡은 송정우씨가 든든하게 극을 받치고 소년·청년 역의 김성관·이영환씨 등 또 다른 정율성 역의 배우들이 제역할을 다했다. 특히 이명덕씨 등 1인 다역을 한 젊은 배우들의 연기는 서로 호흡이 잘 맞고 공들여 연습한 흔적이 보였다. 또 최근 공연 분야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영상 장치 등 과욕을 부리지 않고 담백하게 꾸민 무대도 인상적이었다.

의욕적으로 시도한 음악극 도입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정율성의 음악을 편곡하고 새롭게 작곡한 서정적인

반가운 건 젊은 배우들의 약진이다. 노년의 정율성 역을 맡은 송정우씨가 든든하게 극을 받치고 소년·청년 역의 김성관·이영환씨 등 또 다른 정율성 역의 배우들이 제역할을 다했다. 특히 이명덕씨 등 1인 다역을 한 젊은 배우들의 연기는 서로 호흡이 잘 맞고 공들여 연습한 흔적이 보였다. 또 최근 공연 분야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영상 장치 등 과욕을 부리지 않고 담백하게 꾸민 무대도 인상적이었다.

의욕적으로 시도한 음악극 도입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정율성의 음악을 편곡하고 새롭게 작곡한 서정적인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착하고 정직한 먹거리를 위해
직접 검증하다!

먹거리 X파일

매주 금요일 밤 11시

MC 김진 채널A기자

http://tv.ichannela.com/culture/xfile
02 2020 3333~4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A
www.ichannela.com